

100회 ‘멘토링데이’ 를 맞이하며: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

“멘토링데이를 통해서 회사는 학습조직문화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다. CARROTian들에게 성장은 이미 일상의 목표가 된지 오래다.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며, 동료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일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이 분명하다.”

단군신화에서 인간이 되고자 했던 곰은 빛 한 점 없는 동굴에서 마늘과 쑥으로 연명하며 100일을 견디어내야만 했다. 여기서 100일은 곧 자신을 온전히 ‘환신’ 할 수 있는 고통의 극단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설령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차치하고서라도, 우리는 지난 100개월 동안 멘토링데이를 통하여 쉬지 않고 ‘앓과 성장’이라는 목표를 향해 즐기찬 몸부림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. 그 과정을 역동적인 ‘소통의 場’으로 승화시켜낸 모든 CARROTian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.

회사 초창기 시절, 한 달 한 달이 버거운 환경 속에서 회사의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넘겨지 않은 급여 이외에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. 한 달에 한 권이 충분치는 않지만 지속한다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, 발표와 토론에 운영 초점을 두었다. 첫 번째 도서는 블랜차드의 ‘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’였고, 지금은 다른 여러 권의 책과 함께 모든 신입사원이 읽고 발표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다. 당시 직원들에게는 책을 읽고 자기개념으로 소화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‘도전’이었고, 업무 이외의 가중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불평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 과정을 즐기며 ‘발표 선수’가 되었다는 것이 나오서는 신기할 따름이다.

책을 읽는 목적은 새로운 지식의 ‘발견과 적용’에 있다. 개인적으로는 몇 권의 책을 읽느냐 보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. 인류역사에 기여했던 위인들에게는 삶의 지표를 던져준 결정적인 한 두 권의 책이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. 같은 주제의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것은 ‘발견의 관점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. 하지만 현실에서 ‘적용’이 전제되지 않은 지식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. 여기에 개인차가 존재한다.

멘토링데이를 통해서 회사는 학습조직문화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다. CARROTian들에게 성장은 이미 일상의 목표가 된지 오래다.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며, 동료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일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이 분명하다. 그간 멘토링데이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삶의 질이 고양되고,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치기준도 바뀌었을 것이다. 구성원의 의식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조직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 집단지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. 생존(survival)의 이슈는 모멘텀에서 강력하게 작동하지만, 성장(growth)의 이슈는 그 끝이 없음이 여기서 자명하다.

이제 우리는 100개월째 멘토링데이를 맞이하고 있다. 여느 때와 같은 또 한 번의 독서토론이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할 수 있다. 우리의 후배들은 300회 500회 멘토링데이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, 그들의 후배와 자녀들이 1000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. 그 속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들의 삶은 더욱 고양되고, 회사는 더 성숙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. 다시 한 번 그 감사와 영광을 오늘의 CARROTian들에게 돌리고 싶다.

We Serve the Global Success!
Written by C.E.O James Roh (노상충)

“모든 사람은 본성상 알고 싶어한다” _ 아리스토텔레스

